

당진 석탄화력발전소와 환경피해

안녕하십니까. 먼저 당진시를 찾아 주신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님과 토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 갖는 현장포럼을 준비해 주신 오혜정 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하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참으로 시의 적절한 포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곳 당진은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갖는 만큼 생태자연환경이 수려한 도시입니다.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을 방침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로 인해 시민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석탄화력발전소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발전소의 분진과 냄새로 인해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급기야는 발전소 건설 이후 암환자가 타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발생한다는 언론보도 등 석탄 화력 발전소에 의한 피해가 그것입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최근 국민적 화두가 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와 미세먼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초미세먼지는 조기사망율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그 초미세먼지의 발원지로 현장방문에서 보신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감사원에 의해 지목되었습니다. 미세먼지가 이동하여 수도권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5월 감사원은 환경부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사업의 부실을 지적하면서 충남지역의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수도권 대기환경에 최대 28%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3월에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현재의 석탄화력발전소 초미세먼지로 매년 1,60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며, 정부가 계획중인 24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증설할 경우 충청·수도권 등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최대 입방미터당 19마이크로그램($\mu\text{g}/\text{m}^3$)이 증가되어 그 피해는 매년 최대 2,800명까지 늘어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 중 당진시 지역의 당진화력 9, 10호기로 인하여 매년 220명, 당진에코파워(1, 2호기)로 인하여 매년 80명 조기사망을 예측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시한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눈은 알레르기성 결막염, 각막염에 걸릴 수 있고, 코는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는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등의 질환에 걸릴 수 있으며, 초미세먼지는 폐속 깊숙이 침투해 폐포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계절별 대기오염 물질 확산 모델링을 실시한 결과 1월에는 당진 지역을 비롯한 충남지역에 머물던 오염물질이 4월부터는 수도권과 전국으로 확산된다는 것을 보였을 것입니다. 충남 지역의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수도권에 최대 28%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도권대기개선 계획에 문제가 있다. 수도권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진은 어떨까요. 배출된 초미세먼지가 이동하지 않고 정체된 상태라면 이곳, 당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배출되는 총량이 당진지역에, 또 충남지역에 그대로 농축되어 있다면 사람이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하지 않을까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계획에 충남지역의 화력발전소를 원인으로 지목하면서도 정작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 없이 수도권 대기질 개선만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의 피해만 부각시키면서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에 대하여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못살겠다는 아우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발전소 건설의 축소는 커녕 충남에 발전소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충남에는 전국 53기 화력발전소 중 49%에 달하는 26기가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습니다. 현재 6기가 건설 중에 있으며 착공하지 않은 발전소 4기까지 하면 앞으로 10기가 더 신설될 예정입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 전력생산량(77기 4,822만kw)의 40.6%(36기 1,960만kw)를 생산하다보니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29만 5천 톤 중 37.6%인 11만 1천 톤이 충남지역에서 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화력발전소 건설은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에도 정부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여 지속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화력발전소 집중화로 이어져 오늘과 같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당진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신설되는 발전소와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고 이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등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역민심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당진시는 지역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건강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발전소와의 환경협정을 통해 오염물질 저감 대책은 물론 주민 피해예방

대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대기질 개선에는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시나 충청권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대기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오염원에 대하여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기존의 석탄화력 발전소의 획기적인 오염물질 배출저감 대책을 하루 속히 세워야 합니다. 배출허용기준이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것을 수도권의 발전소와 동일하게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하도록 법을 통해 강화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점차 발전 연료를 대체해야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석탄화력 발전소의 건설을 멈춰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가계획에 의해 건설된 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 조사와 치유도 분명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앞으로 다시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국가의 책무입니다.

물론 당진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오염 개선은 물론 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면서 이산화탄소 저감의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국민의 건강에 대한 염려를 불식시키고 친환경적 산업도시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포럼이 충남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대응 방안과 미래를 전망하는 다양한 의견이 모이는 포럼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